

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탄력'

봉동읍 일원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334억원 투입 2021년까지 완공 목표 130여개 기업 · 1만4000여명 고용창출

완주군이 민관합동방식(제3섹터방식)으로 시행하는 봉동읍 일원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확보·완료해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일 군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34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며 "특히 군은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조기분양을 위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으로 인해 지역내 총생산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명품 주거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 산업시설 용지 171만8,000㎡와 지원시설용지인 미니복합타운 39만6,000㎡ 등 총 211만5,000㎡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16년 9월 전북도로부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주)효성의 참여 및 금융권(농협은행, 군인공제회, 전북은행,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의 대출까지 마무리되면서 지난 10월 10일부터 토지

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보상 협의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군은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130여개 기업 유치를 통한 1조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3,328세대 8,322명 인구증가는 물론, 1만4,525명의 일자리 창출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준공한 테크노밸리 1단계 131만 1,000㎡가 올해 상반기 분양 완료됨에 따라 신규 산업용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분양에도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14년 산업단지활력도 전국 1위로 전북권 산업벨트 중심축이자 탄소소재 등 신성장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대자동차, LS엘트론, KIST전북분원, 전북대학교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과 연계된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 만전

TF팀 보고회 개최 특별 추진상황 점검

무주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TF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특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관련 내년도 예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하상용 부군수를 비롯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TF팀(총괄운영, 홍보지원, 환경시설지원, 친절·위생·먹거리지원 분야)과 각 실과소장 및 담당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될 △문화체험행사와 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부스, △태권도원 경기장 및 숙소 주변 쓰레기 수거, △선수촌 남은 기간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세계태권도연맹 주최 / 2017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주관)는 전 세계 206개국 2천 1백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2017년 6월 22일에서 30일까지



의견을 나눴다.

하 부군수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가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2017 무주 대회가 태권도의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의 고장 무주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세계태권도연맹 주최 / 2017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주관)는 전 세계 206개국 2천 1백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2017년 6월 22일에서 30일까지

9일 간 태권도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21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백 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대회와 관련해 지원 봉사자 아카데미운영 및 태권도상징거리조성 등 24개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사업비 103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사업비 확보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세계적인 대회 개최지로서 무주군의 역할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장수군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나불리조트에서 201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장수군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북도청 성과관리

과 담당자의 특강으로 군 관련 지표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평가의 지표 이해와 대응전략을 중점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2017년 평가에 대비하여 9개분야 173개 지표 가중치 설명과 지자체

노력도 반영 기준, 정성평가 사설설명을 통해 군 지표담당자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지표별 등급 상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또 담당자는 "지표담당자의 지표산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적분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합동평가 지표등급상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정부 3.0 표준교육을 통하여 개방과 소통·공유·협력의 가치로서 장수군의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구현방향을 제시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법법에 근거하여 국정주요시책을 지자체 추진실적에 평가 후 환류함으로써 국정과 지방행정의 통합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실적을 2017년 상반기에 평가를 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해단식 가져

완주군은 2일, 완주군립 중앙도서관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용진노인복지센터, 사랑숲노인요양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간담회 및 해단식을 가졌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복지수혜의 대상이었던 실버세대가 독서봉사를 통해 문화복지의 재능기부자로 활동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모를 통해 전국

8개 광역에서 전라도 대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50세 이상의 예비실버 및 실버세대 2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독서교육을 수료한 후, 6월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 노인, 장애인 시설 등을 2인 1조로 주 2회(총 24회) 방문하여 책읽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문화봉사단원이 각 기관에서 진행했던 책읽이 시연으로 시작하여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

양기관, 장애인과 봉사자와 참여기관 발표로 이루어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정다경(50, 여)씨는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는 평범한 주부인 제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어린 친구들에게 책 읽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책을 통해 지역독서문화의 가교역할 할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무주읍 용포리 하늘바위서 유족 등 30여명 참석

6·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학살된 18명의 영혼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가 2일 당시 현장이었던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소재 '하늘바위'에서 열렸다.

자유총연맹 무주군지회(지회장 서병인) 주관 무주군과 자유총연맹 전북지부가 함께 후원한 이날 위령제에는 박희재, 주강식 씨 등 유가족 대표와 상이군경회 라울채 회장, 전북군경 유족회 박충원 회장, 전북군경 미망인회 황정자 회장, 무공수훈자회 구분숙 회장, 6.25참전유공자회 박희명 회장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하늘바위'는 6·25전쟁 당시 빨치산 인민군이 월북 전 지역의

인사들을 모아 총살시킨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자유총연맹 무주지회를 비롯한 국가보안단체에서는 해마다 합동위령제를 통해 이곳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서병인 지회장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을 당한 선열과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현재의 위령탑이 너무 협소해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기에 민망한 생각마저 들 정도다"며 지자체, 지역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위령탑만이라도 제대로 된 면모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개시

내달 2일까지 6만4000포대

무주군이 지난 1일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시작했다. 군은 안성면에서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무주와 무풍, 설천, 적상, 부남면 등 6개 읍면에서 미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물량(1포대/40kg)은 공공비축미곡 3만8,053포대(1포대/40kg), 시장격리곡 2만5,947포대로 대상 품종은 '신동진'과 '운광'이다.

2016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 가격(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

은 벼 40kg을 기준으로 특등급이 4만 6,480원, 1등급이 4만5,000원, 2등급이 4만3,000원, 3등급이 3만8,270원이다.

군은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 그동안 건조와 정선지도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우리 쌀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도 벌이는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군 친환경농업 운수진 담당은 "등급에 따른 차액분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토대로 내년 1월 정산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의 수고가 보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위촉

완주군은 지난 1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렴군민감사관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성일 군수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해 청렴군민감사관들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청렴군민감사관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렴군민감사관은 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한 감시청구 등

군정 감시기능과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 6월 그동안 운영해오던 민간감사위원회와 권익보호관제도를 결합해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민원의 다방면적인 접근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절차를 거쳐 변호사, 주민대표, 사회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선정· 위촉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석 위원장은 "청렴군민감사관의 역할이 어떻게 생각되지만 청렴한 군정과 군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청렴군민감사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특별기획

진안군, 5일 가을단풍음악회

진안군은 오는 5일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공원 광장에서 가을단풍 절정기를 맞아 '2016 가을여행 주간'과 연계한 '가을단풍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단풍음악회는 '마이산 가을, 음악에 물들다'는 주제로 12시부터 2시 간 가람 진행될 예정이다.

젊은 패기의 ND밴드, 장승초등학교 B.G.M, 실력과 노티밴드가 포함된 진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이재명) 주관으로 김제, 순창, 장수, 정읍 등 4개 시군지역사회 음악동아리로 구성된 총 8개 팀이 빨간 단풍처럼 열정적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공연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진안홍삼차를 제공하고 내년에 열리는 2017 진안홍삼축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무주·장수 4개 복지관 연합 생활체육대회 진안 개최

제3회 진안, 무주, 장수군 등 4개 복지관 연합 생활체육대회가 2일 진안군 문체체육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배인재)과 진안군북학노인복지타운노인복지관(관장 경규봉)이 공동주관해 진안·무주·장수 3개 지역의 4개 복지관(노인, 장애)이 참여했다.

생활체육 대회종목은 당구, 탁구, 보치아, 플라잉디스크, 투호, 고리걸기, 제기차기 등으로 총 5개 종목, 장애인 5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김순자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무주, 장수 지역의 장애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생활개선 장수군연합회 '소통과 화합의 한마음대회'

한국생활개선 장수군연합회(회장 한정순)는 '지혜와 마음을 모아 장수농업을 세우자'는 주제로 지난 1일 한누리리당에서 '소통과 화합의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행사에서는 생활개선회 회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반일면색소폰동호회의 공연을 시작으로 장수농업 발전을 위한 생활개선회원들의 다짐을 결의하는 결의식과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결하기 위한 화합한마당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정순 생활개선회장은 대회를 통해 "쌀값하락 등 농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생활개선회원들의 단합의 의지로 어려움을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장수군의 농업이 1차 농산물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산업과 체험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지역역성리더로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서, 교통사고 예방 현장점검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도로 선형개선 공사현장을 방문, 안전사고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도로 선형 개선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지방도 743호선 장수군 반안면 지지도 및 장계면 의암로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공사현장 지도·점검에는 교통관리계장 및 교통외근 근무자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책임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배치할 것과 야간에 공사현장을 먼 거리에서도 차량운전자가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왕카스 등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장수=고관호 기자